

아! 조각은 이런 멋 새로운 발견

사진으로 본 이원형 조각전시회 이모저모



서울 노현동 영동가구 갤러리 경에서 지난 1일 저녁에 열린 개막 전야 행사에서 전시회를 기획 총괄한 소설가 최일욱 씨가 전시회 개최 의미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전시장 입구에서 이원형 씨의 작품이 열린 가슴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형 조각가가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전시장에 온 관람객들의 요청으로 관람객들과 함께 기념촬영한 이원형 작가. 왼쪽은 부인 이현주 씨. (화보 사진 전시회측 제공)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유니세프를 통해 아프리카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다. 사진은 유니세프 홍보대사 안성기 씨가 이원형 작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